

【 2016.05.26(목) 강원일보 】



강원굿모닝 CEO 학습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강원연합회(회장: 한창희)가 주최한 제13회 강원굿모닝 CEO 학습이 25일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맹성규 경제부지사가 강원경제 현안을 설명한 뒤 연세대 정동일 교수가 특강을 했다. 김보경기자

【 2016.05.26(목) 건설경제 】

건설원가관리사 ‘인기몰이’

공사비용 산정 전문 건협 주관 민간자격증 이달 접수마감, 7월 시험

건설공사비 관련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건설원가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원가관리사는 건설 프로젝트 소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수량 산출 및 단가 견적 조사·분석을 통해 공사비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지역은 물론 미국 등 미주지역에서도 원가관리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QS(원가관리사)가 오래 전부터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원가관리단체연합회에는 전 세계 40여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 12만명이 가입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 제도를 운영해 해마다 1회씩 7월에 시험을 치르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로 건설사, 공기업, 설계회사, CM·감리회사 종사자들이 자격증 획득을 위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해외에선 각광받는 자격증

인만큼 국내에서도 향후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사 견적 업무나, 발주기관 입찰 담당자 등에겐 필수 자격증으로 꼽힌다. 2016년 건설원가관리사 자격 시험은 오는 7월3일 치러지며, 접수는 오는 5월 31일까지다. 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 시키면 된다. 시험 장소와 시간 및 합격자는 오는 6월20일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와 <건설경제> 신문에 공고된다.

응시 자격은 건설협회 건설원가관리사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건설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자다.

시험 과목은 1·2차에 나누어 실시된다. 1차 시험은 △건설사업 관리일반 △공사원가 산정 기준 △공사원가 관리 실무, 2차는 원가계산 실기다. 건설협회 건설원가관리사 양성교육 이수자는 1차 시험 건설사업 관리일반 과목을 면제해준다. 1차 시험은 전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고, 2차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02-3485-8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상준기자 newspia@